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9.17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388.40원 (+0.20원)

KOSPI

3,449.62 (+42.31, +1.24%)

KOSDAQ

851.84(-0.85, -0.10%)

국고채 10년 금리

2.804(-0.017%p)

Special Report

에너지	On-time, On-site: 누가 더 빠른가[김시현, 유재선, 김현수, 하민호, 윤재성]
AI/인터넷/게임	TIME TAKERS (AI UGC는 돈이 된다) [이준호]

Global Asset Strategy

실전퀀트	기준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단기 금리 흐름 [이경수]
신흥국전략	인도 증시, 외국인이 돌아올까 [김근아]

기업분석

SK텔레콤	3사 중에선 그나마 가장 안전할 듯합니다 [김홍식]
삼성전자	메모리 호황으로 호실적 [김록호]

글로벌리서치

유비테크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가이던스 500대로 상향 [백승혜, 송예지]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전기, 미래에셋증권, 오리온, 대한유화, SGC에너지, 디앤디파마텍, RFHIC, 감성코퍼레이션

에브리봇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하나증권

2025년 9월 17일 | 산업분석 Industry In-depth

에너지

On-time, On-Site: 누가 더 빠른가

Overweight

Top Picks

*CP 2025년 9월 15일, 16일

블룸에너지(BE.US)
시장 TP 40.98 USD I CP 67.02 USD

퍼스트솔라(FSLR.US)
시장 TP 223.36 USD I CP 207.00 USD

LG에너지솔루션(373220)
BUY I TP 450.000원 I CP 349.500원

에퀴닉스(EQIX.US)
시장 TP 954.50 USD I CP 791.68 USD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All of the Above 전략 유효, 당장의 변별력은 '빠른 납기'에서

미국의 전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전력망 구축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심지어 트럼프의 에너지 도미넌스 의지가 더해지며 OBBBA는 석탄마저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필요 전력의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결국 모든 전력 자원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All of the Above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2028년 이후로 납기를 설정하는 가스터빈, 2030년 이후 상업용 가동을 전망하는 SMR을 고려할 때 당장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에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데이터센터의 전력원 선호 기준은 '빠른 납기'다.

On-Site: 1) 짧은 납기, 2) 그리드 연결 시간 단축, 3) OBBBA(세제 혜택)

데이터센터는 24/7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선호한다. 그리드는 그동안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해왔으며 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PPA계약을 활용했다. 데이터센터 부지 내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온사이트(On-Site)는 아직 보조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짧은 납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계약 체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온사이트 수요가 급증해 블룸에너지는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약 38%가 온사이트 발전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적으로 온사이트에 의존하는 데이터센터의 비율은 2030년까지 27%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사이트는 빠른 납기의 장점 이외에도 그리드 연결이 필요 없어 전력망 병목으로부터도 자유롭다. 현재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북부 버지니아 그리드 연결 대기 시간은 최대 7년이다. OBBBA 법안에서도 ESS는 조기 일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연료전지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아직 가격 관점에서 가스복합화력 대비 열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짧은 납기에 대한 수요가 비경제성을 극복하는 모습이다. 최근 텍사스(ERCOT) 역시 온사이트 구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Top-Picks: 블룸에너지, 퍼스트솔라, LG에너지솔루션, 에퀴닉스

블룸에너지(BE)의 발전용 연료전지(SOFC)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가스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다면 빠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최근 3년만에 Capa를 2GW로 확대했으며 하이퍼스케일 계약을 수주했다. **퍼스트솔라(FSLR)**는 유일한 CdTe 태양광 모듈 업체로 전력 쇼티지 상황에서 태양광의 짧은 건설 기간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미국 모듈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배제되는 반사 효과 역시 긍정적이다. ESS는 태양광의 낙수효과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 LFP 배터리에 대한 관세와 ITC 소멸로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수혜 확대를 전망한다. 최대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 사업자인 **에퀴닉스(EQIX)**는 데이터센터 인프라에서 대량구매협상력을 갖고 있으며 블룸에너지와도 협력해 19개 데이터센터에서 100MW 이상의 SOFC 설비를 운영 중이다.

2025년 9월 17일 | 산업분석_Indepth

AI/인터넷/게임

TIME TAKERS (AI UGC는 돈이 된다)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9월 16일

NAVER (035420)
BUY I TP 320,000원 I CP 235,000원

카카오 (035720)
BUY I TP 70,000원 I CP 62,900원

크래프톤 (259960)
BUY I TP 539,000원 I CP 318,500원

로블록스 (RBLX.US)
Not Rated I CP 137.25USD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생성형 AI의 수익화는 플랫폼에서 확인

생성형 AI의 출현 이후 투자자들은 어떤 생성형 AI 모델, 서비스가 경쟁에서 승리할지를 고민한다. 물론 중요한 포인트이나 생성형 AI의 대중화 자체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올해 오픈AI의 지브리, 구글의 나노 바나나는 폭발적인 AI 콘텐츠 증가, 생성형 AI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로 인해 ChatGPT와 제미나이의 사용자 역시 폭등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이들은 GPU 사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생성된 AI 콘텐츠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SNS 플랫폼이다. AI 콘텐츠는 막대한 트래픽을 보유한 UGC 기반 플랫폼에서 소비되었다. 사용자들은 콘텐츠의 홍수에서 끝없이 피드를 내렸고 이들의 광고 매출은 급등했다. AI의 보급으로 사용자들의 시간을 확보, 수익화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때다. 플랫폼은 인스타그램(메타), 틱톡과 같이 숏폼 UGC를 무기로 무한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시간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기업, 게임은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에픽게임즈)처럼 UGC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 지속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이 해당한다.

AI가 가져다 줄 시간, 플랫폼의 시간

지금은 분명히 AI의 시간이다. 200년전 전 세계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농업에 종사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노동 시간은 지난 150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증가해왔다. 2025년 현재, 부가 가치는 해당 시간을 확보하는 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AI 에이전트의 보급은 100년전 산업 혁명과 같이 사람들의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노동 외 시간들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AI 오피니언 리더들은 각자 다른 방식의 이상을 말하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방향성에는 한마음이다. 기술 발전으로 운전, 가사 노동 등 기타 시간도 여가 시간으로 치환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플랫폼은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잡으면 무궁 무진한 수익화 방안을 갖게 된다. 검색, SNS 등 플랫폼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광고를 붙여 수익화한다. 게임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로열티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플랫폼화에 성공한 게임은 트래픽을 바탕으로 광고 수익도 창출 가능하다.

AI UGC, 플랫폼과 게임 산업의 미래

AI UGC(Artificial Inteligence User Generated Contents)는 플랫폼, 게임 산업의 미래다. UGC에서 창작자와 사용자는 동일하며 각자의 수요,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기에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다. 생성형 AI의 도입은 창작자로의 진입 장벽을 낮춰 UGC 생태계를 더욱 촉진한다. 모두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를 예상하며, AI UGC 생태계를 보유한 플랫폼이 사람들의 시간을 확보, 가파른 이익 성장을 시현할 것이라 전망한다.

Top Pick: 인터넷 NAVER, 게임 크래프톤

인터넷 Top Pick: NAVER 유지

NAVER(목표주가 320,000원)을 인터넷 산업 Top pick으로 유지한다. NAVER는 생성형 AI의 대중화로 UGC 콘텐츠의 창작이 활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UGC 플랫폼이다. 검색 포털로 시작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검색 기능이 탑재된 UGC 플랫폼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2000년대 초부터 지식인, 블로그, 카페 등 서비스 확장하여 UGC 콘텐츠, 트래픽 축적해오고 있다. 2023년 말 홈피드 개편 이후 모든 지면을 피드로 개편하여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네이버 내 UGC 트래픽 활성화로 압도적인 광고 경쟁력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시장을 아웃 퍼폼하는 광고 매출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 7월 시작한 쇼핑 커넥트는 크리에이터에 제품 링크를 발급, 수익 활동을 제공한다. 콘텐츠와 스마트스토어, 플레이스로 연결시켜 구매,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자는 원스톱 경험을 누린다. UGC 생태계 활성화로 광고, 커머스 매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면 피드화로 이룩한 실적이 2026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있으나 UGC 필두로 한 플랫폼 전체 성장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신규 서비스인 '컷츠', '싱스북', 디즈니 협업 신규 플랫폼의 성과 기대 가능하다. 향후 북미에서 C2C 플랫폼 포시마크까지 동반한 시너지 창출 기대한다. 네이버는 11월 DAN 2025에서 AI 탭 공개, 내년 적용, 2027년 버티컬 서비스를 잇는 통합 에이전트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데이터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유효한 강점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두나무와의 신사업(스테이블코인, STO) 협업, 소버린 AI의 가치는 정부의 제도화, 사업화에 따라 가시화 될 전망이며, 글로벌 LLM사와의 협업 역시 잠재적인 업사이드 요인이다.

게임 Top Pick: 크래프톤 유지

크래프톤(목표주가 530,000원)을 게임 산업 Top Pick으로 유지한다. PUBG는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플랫폼이다. PUBG 모바일은 상시 5개의 모드를 운영하고 UGC 모드인 WoW(World of Wonder) 모드도 서비스하고 있다. 중국의 [화평정영]도 마찬가지다. 텐센트는 [화평정영] 내 익스트랙션 모드 'Subway Escape'가 5월 1일 1주년을 맞아 DAU 3,700만명을 돌파했음을 밝혔다. 해당 모드는 2020년 [PUBG Mobile]에 출시, E스포츠화도 진행된 'Metro Royal'과 유사하다. 또한 [PUBG Mobile]의 UGC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상시 모드, UGC의 활성화가 트래픽과 매출에 모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PC의 경우 2026년 상반기 PAYDAY 모드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모바일에서 검증된 익스트랙션 등으로 추가 확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 UGC 정식 출시까지 이뤄진다면 PC, 모바일 모두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

2024년을 PC 트래픽 성장이 이끌었다면 2025년은 모바일이다. 텐센트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화평정영]의 분기 평균 DAU(Daily Active User)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1분기 춘절 업데이트로 트래픽 상승 확인했기에 2개 분기 연속 성장이 확인된다. **8월 너자 2 애니메이션 콜라보의 폭발적 반응을 감안하면 하반기 트래픽도 유의미한 성장 기대 가능하다. [PUBG Mobile] 역시 신규 모드 [ASYMMETRIC PVP] 출시 예정이다.**

현재 주가는 12MF 13배 수준으로 PUBG 플랫폼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 중인 신규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배제되어 있다. **PUBG PC/모바일의 높은 트래픽에 신규 모드 출시는 신작 출시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이벤트다.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같은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려가고 있는 국내 유일한 게임사다. 강한 비중 확대 전략 추천한다.**

기준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단기 금리 흐름

실전 퀀트 | 2025.9.17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FOMC 후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3.2%이하로 급락할 시, 미국 주식시장 부담

반도체 이익 개선 지속과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하향 논의 등은 추가 주가 상승의 핵심 드라이버

-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적으로 2년물 국채금리 하락을 유발,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바로 2년물 금리의 하락 폭
- 경험적으로 2008년 이후를 돌아보면, 기준금리 인하 후 2년물 금리가 급락할수록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 실제 통계에 따르면, 2년물 금리가 1달 간 -10% 이상 하락할 때 S&P500의 월 평균 수익률은 -0.3%였으며, -20% 이상 하락 시 -3.0%, -30% 이상 하락 시 -6.2%로 하락 폭이 커질수록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
- 현재 2년물 금리가 약 3.53% 수준임을 감안할 때, FOMC 이후 1개월 이내 -10%인 3.2% 이하로 내려가는 임팩트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 또한 해당 금리 수준을 밑돌수록 악영향은 점증하는 경향 관찰
- 따라서, 이번 9월 FOMC의 기준금리 인하가 1) 추가 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약하다는 신호(-25bp 인하 혹은 동결), 2) 다음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연설 시그널, 3) FOMC 이후 경기지표(특히 고용 등)가 침체를 의미하는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는 결코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기 어려워
- 반대로, 이번 금리 인하가 1) 추가 인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50bp 인하), 2) 연설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닫는 시그널, 3) 이후 발표되는 경기지표가 침체를 의미하지 않아 2년물 금리가 반등하는 상황이라면, S&P500은 월 평균 +1.0%의 상승('08년 이후 통계)을 기대, 이는 연준이 의도한 보험성 인하를 통한 유동성 장세를 현실화하는 시나리오
- 경험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금리의 완만한 상승세가 주식시장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작용해왔음
-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 경우 달러화의 하락 방향성이 강화되고 원화는 강세 전환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폭증 가능
- 특히 최근 미국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는 양상, 최근 DRAM과 NAND 수요 및 가격 전망이 높아지고 있어 미국과 한국 반도체 업종 간의 실적의 격차 메우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한국의 주주환원 기대감은 점차 약화되는 흐름,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을 반영하는 배당 ETF 설정액은 최근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개인 홀로 순매수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 결국 주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1) FOMC 전후 미국 단기물 금리의 안정 및 상승 유지, 2) 미국 반도체 업황 및 주가 상승의 지속, 3) 한국 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하향 논의 과정 및 결정 등의 조건이 충족될 필요

2025년 9월 17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증시, 외국인이 돌아올까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7~9월 외국인 대거 이탈한 인도 증시

인도 증시는 7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FPI)의 대규모 순매도로 단기 부담이 가중됐다. 대미 관세 충격과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주식시장에서만 약 70억 달러가 순유출됐으며, 달러/루피 환율 급등 또한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며 증시의 단기 모멘텀을 약화시켰다. 한편, 동기간 SIP를 중심으로 한 로컬 개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은 꾸준히 이어지며 외국인 이탈의 충격을 흡수했다. 이러한 로컬 자금의 뒷받침 덕분에 지수 하단은 제한적이었으나, 본격적인 반등 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복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미 연준 금리 인하로 외국인 자금 흐름 반전될 가능성

이러한 가운데, 9월 FOMC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감도 유효해 외국인 자금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서면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면서 신흥국 전반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달러/루피 환율 역시 과도한 상승 압력에서 벗어나 변동성이 완화되어 외국인 자금 재유입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프랑스 재정 불안, 대미 관세 리스크, 연내 인하 횟수 제한 가능성 등 달러 약세를 제약하는 변수들이 상존해 외국인 자금의 본격 유입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외국인 수급이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인도의 정책 모멘텀과 견조한 펀더멘털은 증시에 대한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GST 2.0 개편은 세율 단순화와 인하를 통해 소비 여력을 높이는 조치로, 축제 시즌과 맞물려 내수 모멘텀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미 관세로 인한 수출 충격을 일부 흡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장기 투자 매력 강화될 전망

결론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시 글로벌 유동성 개선과 정책·내수 기반이 결합되면서 인도 증시는 점진적으로 투자 매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5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회복의 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점도표와 정책 경로에 대한 신호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2025년 9월 17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SK텔레콤 (017670)

3사 중에선 그나마 가장 안전할 듯합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70,000원
현재주가(9.16)	5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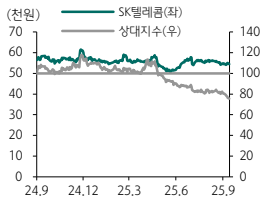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3,449.62
52주 최고/최저(원)	61,500/50,700
시가총액(십억원)	11,706.1
시가총액비중(%)	0.42
발행주식수(천주)	214,79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82.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8.0
외국인지분율(%)	36.74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8 인	30.59
국민연금공단	7.4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7,130.5	17,777.8
영업이익(십억원)	1,226.2	1,840.9
순이익(십억원)	601.8	1,202.4
EPS(원)	2,778	5,463
BPS(원)	53,543	55,20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7,608.5	17,940.6	17,255.1	18,138.2
영업이익	1,753.2	1,823.4	1,356.8	1,882.7
세전이익	1,488.2	1,761.8	1,094.4	1,599.7
순이익	1,093.6	1,250.2	700.6	1,181.7
EPS	4,997	5,810	3,262	5,502
증감율	19.86	16.27	(43.86)	68.67
PER	10.03	9.50	16.71	9.91
PBR	0.94	1.01	0.99	0.95
EV/EBITDA	3.87	3.73	3.92	3.19
ROE	9.63	10.83	5.98	9.88
BPS	53,424	54,898	55,093	57,086
DPS	3,540	3,540	3,540	3,54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 의견/12개월 TP 7만원 유지, 단기 횡보/장기 한 단계 레벨 업 예상

SK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가 7만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국내 해킹 파장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관련 악재가 기반영된 종목이고, 2)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적자/25년 연결 영업이익 급감 가능성을 이미 투자가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3) 경쟁사들과 달리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급격히 너무 낮아져 이젠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 조정과 더불어 외국인/기관 매도세가 완화될 전망이고, 4) 9월 배당 분리 과세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3억원 미만 배당 소득자들의 경우 세후 배당수익률이 5.1~5.5% 이상에 달해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예상되며, 5) 2025년 낮은 기저로 2026년에는 3사 중 유일하게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이 전망되고, 6)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역대 2번째로 낮은 36%대라 장기적으로 보면 수급상 개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0월 초까진 3분기 영업 적자 부담으로 단기 주가 부진이 나타날 수 있지만 10월 중순부터는 2025년 4분기 및 2026년 연간 전망을 근거로 SKT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월까지도 해킹 파장 지속될 것, 상황 종료된 SKT 배당 투자가 가장 안전할 전망

경쟁사들의 주가가 일시적인 충격 후 금주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투자가들이 이제 소액 결제 및 해킹 악재가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라는 판단인데 금주 국회에서 해킹 청문회 개최 및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소비자단체에서는 유심/단말 교체 등 구체적인 보상 안을 제시/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과징금과 더불어 법 개정 이슈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아마도 10월 과방위 국감에선 통신사 해킹 문제가 메인 이슈가 될 것이며 아직 자체 보상 안을 발표하지 않은 경쟁사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공산이 커 보인다. 배당 분리 과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해킹 문제로 투자가들이 매수하기엔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 SKT를 대안으로 삼을 것을 권한다. 이미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에 이어 자체 보상 안을 발표/시행한 상태라 추가적인 악재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해킹 관련 피해 추정 금액 증가로 인한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SKT 투자가 가장 무난하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지분율 급감/컨센서스 낮다는 점이 기회 요인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외국인 매도로 외인 지분율이 역대급으로 낮아졌다는 점과 시장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가 1.15조원까지 낮아졌다는 점도 기회 요인일 수 있다. 컨센서스가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외국인 매도 역시 정점을 통과하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과거 통신사 주가 바닥은 외국인 지분율 저점에서 나왔다. 어찌 보면 지금이 SKT를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2025년 9월 17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삼성전자 (005930)

메모리 호황으로 호실적

BUY (유지)

목표주가(12M)	95,000원(상향)
현재주가(9.16)	79,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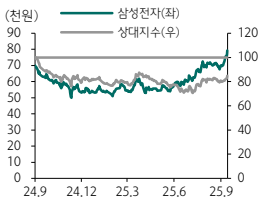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3,449.62
52주 최고/최저(원)	79,400/49,900
시가총액(십억원)	470,019.3
시가총액비중(%)	16.56
발행주식수(천주)	5,919,637.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932.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16.2
외국인지분율(%)	50.78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생명보험 외 15 인	20.15
국민연금공단	7.7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315,827.4	333,903.5
영업이익(십억원)	29,016.2	39,909.5
순이익(십억원)	30,325.0	37,343.7
EPS(원)	4,373	5,448
BPS(원)	62,103	66,58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58,935.5	300,870.9	317,097.7	340,301.0
영업이익	6,567.0	32,726.0	31,362.2	46,600.3
세전이익	11,006.3	37,529.7	37,313.6	51,664.0
순이익	14,473.4	33,621.4	29,820.3	40,353.7
EPS	2,131	4,950	4,422	5,991
증감율	(73.55)	132.29	(10.67)	35.48
PER	36.84	10.75	17.96	13.25
PBR	1.51	0.92	1.30	1.21
EV/EBITDA	9.96	3.60	5.19	3.99
ROE	4.14	9.03	7.44	9.48
BPS	52,002	57,930	61,183	65,738
DPS	1,444	1,446	1,450	1,450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3Q25 Preview: 컨센서스 상회하는 영업이익 전망

삼성전자의 25년 3분기 매출액은 82.5조원(YoY +4%, QoQ +11%), 영업이익은 9.9조원(YoY +8%, QoQ +110%)으로 전망한다. 기존대비 실적을 상향하는 이유는 우호적인 환율과 예상보다 양호한 메모리 업황 및 폴더블 시리즈의 판매량 때문이다. AI 서버를 필두로 서버 중심의 견조한 수요로 인해 HBM, 서버용 DDR5, eSSD 출하가 양호했다. 그로 인해 DRAM, NAND 모두 당초 가정했던 것보다 출하량과 가격이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DRAM 가격은 6% 상승, 물량은 8% 증가, NAND 가격은 5%, 물량은 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파운드리 부문은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 적자폭을 1.4조원으로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갤럭시 Z 시리즈의 판매량 역시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며, Blended ASP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버 중심의 견조한 수요 반영해 실적 상향 조정

일반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론용 AI 시장의 본격화, 다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서버 내에서 고용량 DRAM 및 eSSD 수요가 증가하는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역시 근 1개월 사이에 급상승하는 모양새다. 2018년, 2020년에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가 활발했었고, 해당 서버/데이터센터에 탑재되었던 DRAM 및 eSSD 교체 수요 발생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난 2년간 AI 서버에 집중되었던 투자가 일반 서버로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 DRAM 가격의 상승폭 확대와 향후 일반 서버의 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2025년 및 2026년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한다. 삼성전자 DS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2025년 11.9조원, 2026년 26.8조원으로 전망한다.

실적 상향 여력 및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84,000원에서 95,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 상향은 2025년 및 2026년 영업이익을 기존대비 각각 12%, 22% 상향하고, EBITDA를 12개월 선행에서 2026년 추정치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메모리 업황은 공급이 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에도 타이트한 수급 밸런스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반 서버의 수요 증가가 본격화된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 DRAM 내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해당 부문 실적 노출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수혜 강도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HBM 주요 고객사향 공급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추가 업사이드도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PBR 1.2배로 역사적 평균 1.4배를 하회중이고, 메모리 호황을 고려하면 PBR 상단과 평균의 중간값인 1.7배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2025년 9월 16일 | Global Equity

유비테크(9880.HK)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가이던스 500대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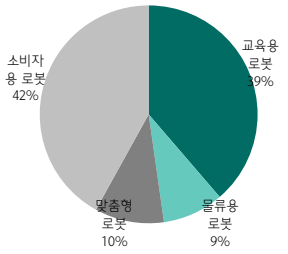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135.71 HKD
CP(9.15)	112.30 HKD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홍콩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기계
홈페이지			www.ubtrobot.com
시가총액(십억HKD)			53.0
시가총액(조원)			9.4
52주최고/최저(HKD)			126/40.8
주요주주 지분율(%)			
Jian Zhou			22.02
Zuoquan Xia			5.69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1.3	13.9	42.1
상대	16.9	3.8	(9.8)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	1,056	1,305	1,956	3,081
영업이익	(1,185)	(1,128)	(1,056)	(705)
순이익	(1,234)	(1,124)	(1,100)	(794)
EPS(CNY)	(3.1)	(2.7)	(2.5)	(1.9)
EPS(YoY, %)	22.0	(12.5)	(5.6)	(23.2)
ROE(%)	(84.5)	(55.2)	(53.5)	(62.0)
PER(배)	-	-	-	-
PBR(배)	17.6	10.6	18.2	19.0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1H25 매출 YoY +28% 증가, 휴머노이드 로봇 약 50대 인도

유비테크의 1H25 매출은 6억위안으로 YoY +28% 증가했고, 조정 순이익은 -3.7억위안(1H24 -3.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되었다. 전사 마진율은 35%로 YoY -3%p 하락했는데 이는 교육용 및 물류용 로봇 마진율 하락에 기인한다.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육용/소비자용 로봇 사업부 매출은 모두 YoY +49% 고성장했으나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이 포함된 맞춤형 로봇 사업부 매출은 YoY -30% 감소했다. 1H25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은 5천만위안(YoY +184%)으로 전사 매출의 8%를 차지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약 50대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에 집중된 휴머노이드 로봇 인도

유비테크는 최근 중국 선도 기업으로부터 2.5억위안 대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Walker S2)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연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가이던스를 기존 300~500대에서 500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유비테크의 휴머노이드 로봇 인도는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5년 출시된 Walker S2는 S1 대비 원가를 50% 절감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20~30% 절감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2026년 신규 버전인 Walker S3를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Walker S2 대비 원가를 약 5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최근 자동차 제조 공장 외에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유럽 항공우주 기업, 일본과 한국의 소비전자 기업에서 유비테크의 Walker S를 테스트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2026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인도량은 2,000~3,000대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7년 흑자전환 목표, 중장기적으로 선도적 지위 유지 예상

장기적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기존 고객사인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의 활용 확대와 기타 산업의 도입으로 인해 2026년 대량 생산은 현실적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사 차원의 영업 레버리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유비테크 전사 순이익률은 2023년 -117%에서 1H25 -67%까지 축소되었으며 경영진은 2027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비테크 주가는 8월 1H25 실적 발표 이후 17% 상승해 2025년 예상 12MF P/S 25배에서 거래중이고, 이는 목표가 대비 여전히 21%의 상승 여력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유비테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 계약 및 신규 로봇 모델 공개 등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9/15	75,400	79,400	5.31%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9/15	190,400	192,900	1.31%	• 2Q25 Review 매출액 2.7조원(YoY +8.0%), 영업이익 2,130억원(YoY +1.0%) 기록 •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미래에셋증권 (006800.KS)	9/15	22,100	22,650	2.49%	• 자사주 의무 소각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기대. 자사주 18.9% 보유 부각 전망 •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방향성 긍정적
오리온 (271560.KS)	9/15	109,900	108,800	-1.00%	• 중국 정부,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소비 확대 위한 정책 제시 전망 • 중국 배달 업체 경쟁 완화,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 하반기 하락 예상
대한유화 (006650.KS)	9/15	119,100	113,500	-4.70%	• 2Q25 기준 대한유화의 NCC 가동률은 94.5%로 경쟁사 70~80% 대비 매우 높아 • 중국 등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 움직임으로 업황 개선 기대감
SGC에너지 (005090.KS)	9/15	23,700	23,750	0.21%	• 26년부터 기대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정상화로 장기적인 실적 회복 여지 충분 • 연간 감익 기조에도 불구하고 DPS 1,700원 지속될 것으로 기대
디앤디파마텍 (347850.KQ)	9/15	160,000	161,200	0.75%	•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텍 기업 멧세라가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경구제 개발 의지 피력 • 아직 경구제 파이프라인의 타임라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9월 내 IND 관련 소식 기대
RFHIC (218410.KQ)	9/15	30,600	31,950	4.41%	• 25년 가을 미국 주파수 경매 이후 급격한 실적 호전 추세 진입 전망 • 미국의 중국산 부품 제재 강화로 25년 1분기부터 대 미국 수출 물량 증가
감성코퍼레이션 (036620.KQ)	9/15	6,430	6,120	-4.82%	• 2Q25 Review 매출액 536억원(YoY +7.1%), 영업이익 87억원(YoY -12.9%) 기록 • 연내 중국 진출 모멘텀이 가시화됨에 따라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 기대
에브리봇 (270660.KQ)	9/15	16,720	17,440	4.31%	• SK의 첨단 AI 자율주행 기술을 융합해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신제품 선보일 전망 • AI 자율주행로봇 플랫폼의 연구개발 완료 이후 관련 매출 발생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84%	-0.74%p	+35.63%	-2.0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한국금융지주 (071050.KS)	9/15	150,000	158,300	5.53%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이후 추가적인 수신 기반 확대 전망
현대모비스 (012330.KS)	9/8	323,000	309,000	-4.33%	• 미국 관세 비용의 영향이 있지만, 미국 신공장의 가동률 상승으로 부분 만회 가능 • 부품제조 위주로 고부가화와 원가구조 개선을 진행 중
현대제철 (004020.KS)	9/8	34,800	36,100	3.74%	• 2Q25 Review 매출액 5.9조원(YoY -1.6%), 영업이익 1,018억원(YoY +3.9%) 기록 • 국내 철근 유통가격 바닥 이후 상승세로 전환, 3분기 판재류, 봉형강 스프레드 확대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9/1	160,500	192,900	20.19%	• 2Q25 Review 매출액 2.7조원(YoY +8.0%), 영업이익 2,130억원(YoY +1.0%) 기록 •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리가켐바이오 (141080.KQ)	8/11	149,600	150,400	0.53%	•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 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삼성전자 (005930.KS)	8/4	68,900	79,400	15.24%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HD현대중공업 (329180.KS)	8/4	476,500	503,000	5.56%	• 2Q25 Review 매출액 4.1조원(YoY +6.8%), 영업이익 4,715억원(YoY +141.1%) 기록 • 가스선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상선 선종 Mix 개선 현재 진행 중
파라다이스 (034230.KS)	7/21	19,050	21,300	11.81%	• 2Q25 Review 매출액 2,845억원(YoY +4.1%), 영업이익 429억원(YoY +33.9%) 기록 • 한중 관계 개선 및 마카오 서프라이즈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중국 드랍액 상승 기대
KCC (002380.KS)	7/14	357,000	433,000	21.29%	• 건설 경기 침체에도 주요 건자재 제품에서 독보적인 M/S를 기반으로 성장 중 • 과거 5년 평균 0.35배의 대표적인 저PBR 종목으로 기업가치 제고 기대
에이피알 (278470.KS)	7/14	166,300	213,000	28.08%	• 2Q25 Review 매출액 2,876억원(YoY +85.0%), 영업이익 592억원(YoY +111.0%) 기록 • 1Q25 미국 내 단일 브랜드 기준 K뷰티 매출 1위 달성, 마케팅 고도화로 해외 외형 성장 중
SK하이닉스 (000660.KS)	7/7	270,500	348,000	28.65%	• 2Q25 Review 매출액 22.2조원(YoY +35.0%), 영업이익 9.2조원(YoY +68.0%) 기록 • 불확실한 수요와 업황 속에서도 HBM을 필두로 DRAM 경쟁력 입증 완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7/1	848,000	1,041,000	22.76%	• 2Q25 Review 매출액 6.2조원(YoY +168.7%), 영업이익 8,644억원(YoY +156.3%) 기록 • 하반기 K9 자주포 및 천무의 인도 지속 고려, 高수익성 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
KT&G (033780.KS)	7/1	127,700	135,100	5.79%	• KT&G는 업종 내 가장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 중 • 해외 담배 매출 유의미한 성장세 지속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7.66%	-4.24%p	+46.46%	+8.8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14	9.15	9.16	9.17	9.18	9.19	9.20
	▪ 중국 8월 소매판매 (3.4%, 7월 3.7%) ▪ 중국 8월 광공업생산 (5.2%, 7월 5.7%) ▪ 중국 8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 (0.5%, 7월 1.6%) ▪ 미국 9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8.7P, 8월 11.9P)	▪ 독일 9월 ZEW 경제성장 예상 (E --, 8월 34.7P) ▪ 유로존 9월 ZEW 경제성장예상 (E --, 8월 25.1P) ▪ 유로존 7월 산업생산 (E --, 6월 -1.3%) ▪ 미국 8월 소매판매 (E 0.3%, 7월 0.5%) ▪ 미국 8월 광공업생산 (E 0.0%, 7월 -0.1%) ▪ 미국 8월 설비가동률 (E 77.4%, 7월 77.5%)	▪ 일본 8월 수출/입 (E --/--, 7월 -2.6%/-7.5%) ▪ 영국 8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7월 3.8%/3.8%) ▪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F (E 2.1%/2.3%, 7월 2.0%/2.3%) ▪ 미국 8월 주택착공건수 (E -3.9%, 7월 5.2%) ▪ 미국 8월 건축허가 (E --, 7월 -2.2%)	▪ 미국 9월 기준금리 (E 4.25%, 7월 4.50%) ▪ 일본 7월 핵심기계수주 (E --, 6월 7.6%) ▪ 영국 9월 기준금리 (E 3.75%, 8월 4.00%)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E -0.1%, 7월 -0.1%)	▪ 일본 8월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E --/--, 7월 3.1%/3.1%) ▪ 일본 9월 기준금리 (E 0.50%, 7월 0.50%)	
			▪ 미국 9월 FOMC (~18)	▪ BOE 9월 통화정책회의 ▪ BOJ 9월 통화정책회의 (~19)		
9.21	9.22	9.23	9.24	9.25	9.26	9.27
	▪ 한국 9월 1-20일 수출/입 (E --/--, 8월 7.6%/0.4%) ▪ 유로존 9월 소비자기대지수 (E --, 8월 -15.5P)	▪ 유로존 9월 HCOB 제조업 PMI P (E --, 8월 50.7P) ▪ 유로존 9월 HCOB 서비스업 PMI P (E --, 8월 50.5P) ▪ 미국 9월 S&P Global 제조업 PMI P (E --, 8월 53.0P) ▪ 미국 9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P (E --, 8월 54.5P)	▪ 한국 9월 소비자기대지수 (E --, 8월 111.4P) ▪ 일본 9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P (E --, 8월 49.7P) ▪ 일본 9월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P (E --, 8월 53.1P) ▪ 독일 9월 IFO 기업환경예상 (E --, 8월 89.0P)	▪ 미국 2분기 GDP F (E 3.3%, 1분기 -0.5%) ▪ 미국 8월 내구재 주문 P (E --, 7월 -2.8%) ▪ 미국 8월 항공기 제외 비국방 자본재 수주 P (E --, 7월 1.0%)	▪ 미국 8월 개인소득/개인소비 (E --/--, 7월 0.4%/0.5%) ▪ 미국 8월 PCE 디플레이터/근원 PCE 디플레이터 (E 2.7%/2.9%, 7월 2.6%/2.9%) ▪ 미국 9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지수 F (E --, 8월 58.7P)	
	▪ 미국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	▪ 미국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	▪ 미국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		▪ 미국 보먼 연준 부의장 연설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